



[라이프]
“겨울엔 국물이 제격”
식품업계
면 제품 출시 활발
L1

매일 아침 내 손 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위기의 K반도체… 국가 지원, 인력 양성으로 생태계 정비해야

세계 경제서 반도체 중요성 커져
K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지속 우려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시급해

2022 메트로 반도체 포럼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는데 공감하고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반도체 시장 ‘다운 사이클’과 미중무역분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제시됐지만, 반도체 산업이 미래에도 성장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강연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재근 석학교수는 2030년 반도체 시장이 지금보다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왕성호 대표도 반도체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 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승우 센터장은 이번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체로 희망적인 다른 강연자들과는 다른 입장장을 보였다. 다만 수년 안에 반도체 매출이 전세계 총생산에서 비율을 역대 최고인 0.6%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하고, 추후 자동차와 정유 등 주력 산업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고, 국내 경제에서도 중요한 분야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박재근 석학교수는 스마트

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중에서 핵심 부품들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미래에도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메모리 시장 침체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지원 부재다. 박재근 석학교수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안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생태계도 큰 문제였다. 이승우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대만과 비교하면 반도체 강국으로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 지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재근 석학교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와 함께 화학물질 유통 규제

완화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가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인력 양성도 시급한 문제였다. 박재근 석학교수는 메모리 뿐 아니라 소부장 등 생태계를 위해서는 연간 1만명 이상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 완화와 교육 기관 확충 등이 절실히 강조했다.

미중무역분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승우 센터장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지속하기 어렵게 됐지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성도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박재근 석학교수는 미국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주시했다. 조은교 위원은 중국이 미국 무역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천기술 확보와 자원 무기화,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반도체 산업은 ‘패러독스’ 기술 인재 양성해 패권 지켜야”

축사

양 향 자 국회의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메트로경제의 2분기 반도체 포럼을 축하합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하고 움직이고 대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칩4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미국 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알려줍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스’같다. 모순이 곳곳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강대국이라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미국은 중국 제재를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대만이 파운더리 사업을 전 세계 마켓이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시장이 입게 될 데미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에 미국이 삼성에게 기회를 준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술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메모리 반도체의 패권을 지킬수가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반도체 산업이 국가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홍 순 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장 홍순욱입니다. 먼저 ‘2022 반도체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팹리스, 파운드리 등 수 많은 기업들이 한국 경제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셋터에 속한 기업들이 우리 증권시장에 다수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규모 또한 우리 증권시장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죽을이루는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우리 증권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외형적인 요건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상장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를 받을 때, 제도상의 다소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기술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향후 국가 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여러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과 같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소기업 어우러진 생태계 반도체 경쟁력이 기업 살리는 길”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경제 대표

얼마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절물휴양림, 곳자왈, 산굼부리, 머체위숲길 등 언제부터 뿌리내렸는지도 모를 원시림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생태계에서 피톤치드를 흡뻑 들여마셨죠.

새별오름은 역사, 사려니숲길은 삼나무, 이렇게 그 생태계를 대표하는 식물은 있기 마련이지만 사실숲 생태계는 다양한 식물과 나무, 곤충, 동물 등이 어우러져 생겨난 곳이지요.

반도체 생태계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떠올리지만 이 두 거인만으로 생태계가 꾸려지진 않습니다. 많은 소자업체, 테스트 및 패킹업체, 설계하는 기업, 재료 및 장비기업, 설비업체 등이 모여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죠.

밖에서 미국과 중국간에 기술패권을 둘러싼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에선 ‘K-반도체 육성정책’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오해에 빨목 잡혀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태계 안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도체 마저 중국에 밀린다면 우리나라에는 동북아의 주변국, 변방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양향자 의원님과 함께 K-반도체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십시오. 이 포럼의 의미이자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IA 한승혁·장지수→한화 변우혁
‘2대 1’ 트레이드
▲손흥민, 월드컵 간다…벤투 “최종 엔트리 선발” 확언
/사진 뉴시스

▲F1 황제 슈마허 2003년 페라리 F2003-GA, 204억에 팔려
▲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 판즈베던, 내년 7월 첫 지휘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백남준 효과’ 기획전 개막
/사진 뉴시스
▲뮤지컬배우 전동석, 3년 만에 ‘두 번째 선물’ 콘서트 개최